제3강 현재의 일반성과 수동적 종합

(1교시)

◆현재의 일반성과 수동적 종합
※학습목표: 들뢰즈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갖는 관계와 수동적 종합을 알아본다.

▲과거와 미래의 위치
「*선행하는 순간들이 수축을 통해 유지되는 한에서 과거는 현재에 속한다. 기다림은 그런 똑같은 수축 안에서 성립하는 기대이므로 미래는 현재에 속한다.*」
-선행하는 순간들이란 과거를 말한다.
-그냥 완전히 지나가버리는 과거란 없다. 지나갔지만 현재 속에서 밑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다. 미래도 현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지평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미래다.

▲현재의 일반성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고 가정된 순간과 구분되는 어떤 순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그 자체의 차원들을 지칭할 뿐이다.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살아 있는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지만, 그 과거와 미래는 현재 자체가 시간에서 구성한 과거이자 미래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현재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행한다.*」
-들뢰즈에게 특수한particular 것과 일반적인general 것은 부정적 뉘앙스를 띤다. 이는 집합론적 관계다. 들뢰즈가 생각한 것은 singler한 것과 universal한 것이다. 그래서 monster라는 표현이 나온다. monster는 particular와 general을 해체하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가는 becoming 것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과 '일반적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현재가 응축하면서 과거가 쌓이고 미래가 들어오지만, 과거와 미래를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쓰였다.

▲현재의 일반성이 가지는 특징
「*하지만 이때 그 현재는 수축을 통해 특수한 것을 봉인하고 있다가 자신의 기대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것을 개봉한다. 정신 안에서 산출된 차이는 미래의 생생한 규칙을 형성하는 한에서 일반성 그 자체다.*」
-현재는 수축한다. 그 수축한 것이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를 개봉한다고 표현했다.
-만약 정신의 그러한 속성이 없다면 일반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한 것들만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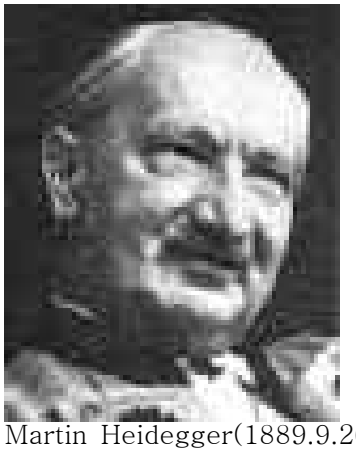
▲수동적 종합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종합은 수동적 종합이라 불러야 한다. 이 종합은 구성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동적인 것은 아니다. 이 종합은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기억과 모든 반성에 앞서 응시하는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때의 종합은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는 종합이 아니라 그 아래서 일어나는 종합이다. 즉

www.artnstudy.com

능동적 종합 이전에 일어나는 수동적 종합이다. 이에 대해 들뢰즈는 애벌레 주체라는 표현을 쓴다.

▲수동적 주체와 시간
「시간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수동적 주체의 주관성이다. 수동적인 종합, 혹은 수축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현재 안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즉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시간의 화살에 방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서 인간 현존재의 형이상학적, 실존적 시간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식이 다시 과거로 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로 온다. 이러한 시간은 보통의 물리적 시간과 전혀 다르다. 인간 현존재의 시간이다.
-들뢰즈도 물리적 시간에 비해서는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적 객관주의와 현상학적 주관주의 사이에서 복잡한 입장을 이룬다.

*참고자료


Martin Heidegger(1889.9.26~1976.5.26) 독일의 철학자

▲질문1
-질문: 시간은 현재가 수축해서인가 나타나는 것인가?
-답변: 파편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축하기 때문에 두께가 생긴다. 그러한 두께 속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타난다는 것은 응축이전의 일이다.
 그런데 나타남으로 현재를 생각할 때,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생각해 볼만하다.

▲질문2
-질문: 칸트의 경우 공간은 외적이고 시간은 내적이라 했다. 들뢰즈는 어떤가?
-답변: 들뢰즈는 공간 얘기는 안하고 있다. 시간이 주제다.
 들뢰즈가 시간을 외적, 물리적으로 보기보다는 주체성의 구성 행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들뢰즈에게도 시간은 내적이고 공간은 외적이다. 그런데 칸트와의 결정적 차이는 들뢰즈에게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과 분리되어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수동적 종합이다.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세계를 형성한 내적인 세계는 들뢰즈에게

www.artnstudy.com

없다.

www.artnstudy.com